

금주의 칼럼

효과적인 의사소통(9)

9. 상황과 대상에 따른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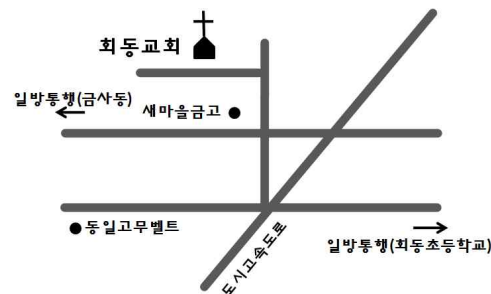
나는 나이, 직책, 문화가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나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요?
 노년층이나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존중을 표현하고 있나요?
 직장 상사 또는 후배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상황에 따라 말투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나요?
 감정이 예민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는가요?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가장 언어가 부드러워지나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대화한 경험은?
 전도나 사역 현장에서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소통 방식을 삶에 반영하고 있나요?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롬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삼 일 기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삼 일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어버이주일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1장
교 독 문	98문 (어버이주일)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579장
기 도	최진수 장로
성 경 교 독	잠언 23: 22-25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찬송*봉헌	576장 / 봉헌
봉 헌 기도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2026. 5 . 10 / 제 48-19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배영조목사

경배와 찬양 [1:45-2:10]

입 레: 작은십자가
 찬 송: /
 기 도: 박상태 집사 (다음: 헌신예배)
 성 경: 시편 65: 1-4
 특 송: (다음: 선교헌신 / 7구역)
 말 씀: 찬송이 시온에서(2)
 기 도: 합심기도(2)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요한복음 4장 3-30절/ 인도: 허춘성전도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누가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5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오정수(온천) 오세영(재송)
안 내 / 식 당	김삼례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3일) 2주(10일) 3주(17일) 4주(24일) 5주(31일)
기 도	1,2구역 3,4구역 5,6 구역 7,8구역 9,10구역
주 일예배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주 일오후	김삼예 박상태 헌신 박영수 김장우
삼 일 밤	합심기도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 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522-3708(목사관)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1 어버이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2 경배와 찬양: 오늘 오후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 3 피택자모임: 피택자 1차모임: 오늘 오후 1시 5분, 3층 교육관
피택자들은 다 참석바랍니다.
- 4 선교헌신: 다음 주일에는 선교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남덕모 목사 (주영교회 담임)
- 5 구역모임: 5월 구역모임 구역별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 6 총회세미나: 총회가 주관하는 목장 세미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11-14일. 용인제일교회당 회집.
- 7 전도팀: 전도팀 전도는 한달에 두 번 나갑니다.
매달: 첫째 주/ 셋째주. 1교구팀- 금요일 오후 2교구팀- 화요일 오후
- 8 행사안내: 1)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2) 총회 세미나: 용인제일교회당 11일부터
3) 선교헌신예배: 다음주일

- # 야외행사: 6월 3일(수) 회동교회 전교인 대상 야외행사 있습니다.
전체 교우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장소: 황산공원(물금역 강변지역) 출발시간: 교회에서 10시
준비물: 개인 및 구역별준비- 점심과 밑반찬
교회: 고기반찬 및 양념
교통편: 교회차량 및 개인차량 동원

5 월 행사 안내

* 어린이주일: 5월 3일	*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5월 셋째주일
* 어버이주일: 5월 10일	* 전도팀 전도: 첫째주, 셋째주 전도
* 어버이 선물: 70세 이상	1교구/ 2교구
* 선교헌신: 셋째주일	* 가정의달: 5월달
* 총회 목장세미나: 5월11-14 용인제일교회당	* 교사주일: 5월달
* 경배와 찬양: 5월 둘째주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모임: 5월 모임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김은수*김은숙 김충공*신금희 배성현 오정수
이영희
- ◆**감 사:** 김승하 김은수*김은숙 김충공*신금희 박위순
김치현*김삼예 박종규*강영선 이영희 무명
- ◆**선 교:** 김충공*신금희 이봉순 이영희
- ◆**건 축:** 이영희 이봉순 김충공*신금희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5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		13000	1542	박영수
2	강형순	3		20000	4070	교 회
3	이은심				3580	
4	백운자				5935	
5	김경애				2870	
2교구						
6	이봉순				1231	
7	박광자	5			2250	김중렬
8	이현정				6429	
9	전만주				3586	
10	김종섭				800	

생명의 양식

05-2 훈계의 원리 (7) 잠언 29장 17절

7. 일곱째, 훈계하는 부모에게 죄책감이 없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훈계가 안됩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한 것을 사무엘상 11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어 13장에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동생 다말을 추행합니다. 다윗이 심히 노했지만 더 이상 훈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비슷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버립니다. 그처럼 압살롬의 살인을 보고서도 다윗은 분명하게 훈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악들은 다윗도 똑같이 범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찌 바른 훈계가 되겠습니까?

왜 대체적으로 부모의 나쁜 점을 아이가 닮게 될까요?
왜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술버릇을 아이도 닮게 될까요?
그것은 그 부분을 부모로부터 훈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부모는 가져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때로 아주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아이들 앞에서도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권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실한 회개는 자녀들에게 감동으로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부모의 권위는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